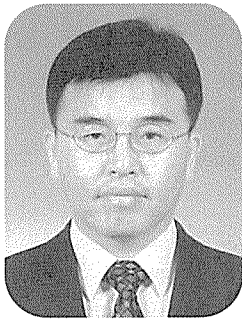


일본경제 위기의 교훈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최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중의 하나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Who Moved My Cheese)?' 라고 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다. 저자는 미국인 스펜서 존슨인데, 우화의 일종인 이 책이 일본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치즈를 찾기 위해 최후까지 미로속을 헤매는 책중의 한 어린이가 일본인과 흡사하다는데 있다고 한다. 일이나 돈 등을 상징하는 치즈를 찾기 위해 끝까지 불변의 행동을 하는 어린이가 마치 변화를 싫어하는 일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크게 자각하게 된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치·경제상황의 악화 때문이다. 정치면에서는 수십년간 지속된 밀실정치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직된 정치구조에서 최대 파벌을 배경으로 하는 인물만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악폐가 되풀이되면서 리더십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검증이 제대로 안된데다 준비나 각오도 돼 있지 않은 인물들이 밀실의 결정에 따라 총리가 되다 보니 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모리 요시로가 총리에서 물러나면 헤이세이(平成) 출범해인 89년 이래 10명의 총리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총리생산'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과거에는 우수한 관료가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관료가 되면 관직의 최고 자리에 까지 승진할 수 있고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들이 관료를 지망했고 이들은 각종 행정지도와 비전제시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 왔다. 관료들은 권위와 존경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창의성없고 경직된 관료조직이 오히려 개혁과 변화를 저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경제는 90년대 이후 미국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장기침체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실업률이 전후 최고치로 상승하는가 하면 수출도 급격히 위축되어 올 1월에는 무역수지가 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증시침체로 소비위축이 심화

되고 기업의 자금난이 가속화되며 은행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결국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경제가 크게 비약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것은 변화를 싫어하고 위협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일반 대중들의 속성에도 이유가 있다.

최근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인들의 '장롱저축'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주가가 오르고 이것이 경제에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금리하락속에서 사람들이 장롱속에 돈을 묻어두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본인들이 위협을 꺼리는 성향이 상당히 높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일본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 1월의 현금통화 평균잔고는 57조 6000억엔으로 1963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수준에 달했다. 예금잔고에 대한 현금의 비율도 9.5%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7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또 일본인들의 금융자산중 주식의 비중은 6.7%로 미국의 22.6%보다 크게 낮다.

변화를 꺼리는 일본인들의 속성은 개혁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부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더구나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일본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92년 이래 11번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총 118조엔에 달하는 사업투자를 했으나 침체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경제불황의 핵심 원인인 소비부진도 개인들의 불안심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왜 선진국 국민답게 소비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자원이 빈약한 나라여서 마음놓고 소비하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일본인들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고백이다.

빌 게이츠의 말대로 21세기는 '속도의 시대'다. 생각하는 속도로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다.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그렇다.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값진 교훈을 얻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물결에 신속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의식과 관행, 제도를 가지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교육제도나 정치관행 관료조직 등은 아직 변화의 물결과 동떨어져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구조조정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정 분야에서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원의 낭비만 초래될 뿐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할 수 있다.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전 분야에서 철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위협을 꺼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도 중요하다. 금리가 지난달 중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